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5000명 선발

중기부, 청년 68.4% · 지역 창업자 74%... 13~78세까지 전국서 창업 열기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6만3천여 명이 지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평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예비 창업인재 5천 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일반·기술 트랙 4천 명, 로컬 트랙 1천 명 등 총 5천 명이 선정됐으며, 나이와 경력, 지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가 발굴돼 주목을 받았다.

선정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이 68.4%를 차지해 청년 창업 열기를 입증했다. 또 최연소 13세부터 최연장 78세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창업

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 도전의 장임을 보여줬다.

일반·기술 트랙 최연소 선정자인 13세 김태인 학생은 와이파이 신호를 활용해 학교폭력을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최고령 선정자는 음식물 쓰레기 탄화체를 활용한 친환경 경 나프타 제조기술을 선보였다. 외국인 선정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시험 대비를 위한 AI 기반 원고지 연습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로컬 트랙에서는 17세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연계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72세 선정자가 못이 사파를 활용한 에너지 분말스틱 개발 아이디어

를 제시했다. 일반인 창업자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부산 여행 정보 플랫폼 개발 계획으로 선정됐다.

지역 창업자 비중도 높았다. 전체 선정자의 74%가 비수도권 출신으로 집계됐으며, 일반·기술 트랙은 70%, 로컬 트랙은 90%가 지역 도전자였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 분야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라이프스타일(17.8%), 바이오·의료(10.1%), 교육(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관련 아이템은 전체의 29.3%를 차지해 산업 전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 로컬 트랙은 생활 분야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식음료(F&B)

37.3%, 뷰티 9.3%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선정자 전원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 멘토링과 AI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1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5만8천여 명의 도전자에게는 심사 평가 의견과 함께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멘토링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0회 운영되며, 온라인 멘토링도 같은 날부터 신청을 받는다.

재도전 멘토링 참여자와 아이디어를 보완한 신청자에게는 오는 7월 초 시작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선정평가에서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9일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공갈등 관리 역량 강화 '맞손'

전북개발공사-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업무협약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개발공사는 9일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

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관련 연구·자문 협력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노조, 공공기관 통합 논의 신중 추진 촉구

이원택 도지사 당선 환영... '산업 경쟁력 · 고용안정 우선한 구조개편 이뤄져야'

전북테크노파크 노동조합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당선을 환영하며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와 관련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이원택 당선인이 강조해 온 도민권과 지역 중심 성장, 내발적 발전 전략은 지방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전북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새 도정이 도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제기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통합 가능성 등 산하기관 구조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노조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혁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기관 통합과 조직개편이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예산 절감 논리에 의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테크노파크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예산 확보, 연구개발 기획, 기업지원, 기술

사업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북 산업정책의 핵심 실행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과 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농생명바이오 산업, 방위산업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 육성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산업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새 도정에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구성원의 참여 보장 △통합 및 조직개편 필요성과 기대효과, 재정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 공개 △전북테크노

파크의 산업지원 전문성과 기업지원 기능 유지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장 △전북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사업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산업 발전과 도민 이익,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도정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리딩비즈클럽 개최...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대표 중소·벤처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북리딩비즈클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리딩비즈클럽은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지역 기업인 네트워크로, 현재 도내 주요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클럽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비롯해 멘토링, 투자,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보안과 방첩'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기업 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기업설명회(IR)에서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과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리딩클럽의 발전 방향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오상근 기자

국립농업박물관, 화훼 농업 역사 담은 특별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업박물관은 오는 10월 5일까지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소장품전 '순팔에서 핀 나날의 꽃'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수집·보존해 온 화훼 관련 유물을 통해 우리 화훼 농업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서적과 도자기, 회화 등 총 115점의 유물이 소개된다.

전시는 꽃의 활용과 재배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가까이 머물다'에서는 조선시대 궁궐의 화훼 관리 기록과 선조들의 정원문화를 소개하며, 제2부

'울타리 안에서 피우다'에서는 생활 공간 속 꽃의 상징성과 활용 사례를 다룬다. 제3부 '순팔에서 피우다'에서는 화훼 문화가 대중화되고 생활문화 산업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화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산 생화 장식도 선보인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가 참여해 전시장 입구를 국산 꽃으로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박춘원 전북은행장, 전 센터 현장 순방 소통

전북은행이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며 직원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박춘원 은행장이 영업부 센터를 시작으로 전 센터를 대상으로 한 현장 순방에 본격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 최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방문과 만찬을 병행해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순방을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영업 현장을 찾아 조직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은행장은 현장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감사 문화 확산,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신뢰받는 리더십 구축 등 3대 기업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특히 감사하는 조직문화와 체계적인 업무 표준화가 직원들의 행복과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박춘원 전북은행장이 전 센터를 대상으로 한 현장 순방에 본격 돌입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